

##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한국의 이미지 및 한국학 관련 설문 분석 연구\*

박종욱(한국외대)\*\*

- I. 설문 조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II. 설문지의 설계 및 제작
- III. 설문 조사 설계
- IV. 주요 결과
- V. 결론

### I.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향상시키고, 한국어 및 한국학 관련 연구를 진흥해야 할 당위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한국을 해외에 널리 인식시키고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해외에서의 한국학 연구 진흥’은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본 연구논문은 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분야 국내외지역 연구비의 지원(2002-072-BS2562)을 받아 연구되었음

\*\* Chong-Wook Park(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abien2000@yahoo.co.kr/simon-park@hanmail.net ), “Estudio de la encuesta realizada para analizar la imagen de Corea y la situación de los estudios sobre Corea en el mundo hispánico”.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한국학의 정립과 진흥을 위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한국학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해외 한국학 연구자 정보에 전체 등록 연구자 2056명 가운데, 스페인어 문화권 거주 등록 연구자는 1명이며, 그나마 일시적 계약에 의한 파견형식의 해외 거주 연구자이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국제교류재단의 해외한국연구지원 계획에 지원 대상으로 스페인어 문화권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없다. 따라서 한국의 이미지 향상 및 한국학 정립을 위한 한국 관련 자료의 조사·분석은 균형감 있는 해외 한국학 연구 및 스페인어 문화권과의 상호 교류의 차원에서 매우 시급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문화권을 대상으로, 한국학의 위상을 파악하고 한국학 정립을 위한 전략적 연구라는 큰 틀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부속 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의 이미지 및 한국어·한국학 교육 관련 기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한국학의 일반적인 위상 및 향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본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데에 구체적인 목적을 지닌다.<sup>1)</sup>

---

<sup>1)</sup> 본 연구 논문은 2002년 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분야 국내외지역 소형과제인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한국학 정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조사·분석] 연구 수행에 있어서 '한국의 이미지 조사·분석' 분야 연구이며, 특히 설문조사를 기초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 조사·분석 및 한국어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에 그 구

## II.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연구가 본 연구 이전에 시행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객관적이면서도 분석적인 설문지의 설계 및 제작을 위한 준비 과정에 많은 작업과 시간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설문 형식을 설계하고 제작하기 위해서 다양한 양식의 설문조사연구의 표본을 학습하고 분석하는 기초 과정을 비롯하여 다른 외국어문화권에서의 설문조사 유형 및 스페인어문화권의 문화에서의 일반적인 설문지 양식을 분석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본 설문조사는 기초 조사 및 분석에 기본 목적을 설문지는 스페인어로 제작되었으며, A형과 B형으로 나뉘어 있는데, A형은 모든 설문응답자가 대답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적인 유형의 질문으로 이뤄져 있으며, B형은 한국에 대한 기초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 유형이다.

A형 설문지는 구체적으로는 기본 인적 사항에 대한 기초 조사와 외국에 대한 관심도, 외국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인식도, 한국 관련 기초 정보 유무에 관한 조사 및

---

체적인 목적을 갖는다.

한국에 대한 인식 및 관심도 조사 등의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다.<sup>2)</sup>

B형 설문지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한국학 관련 수업을 듣는 학생 혹은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및 한국학에 대한 위상 점검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받기 위해 설계된 유형이다.<sup>3)</sup>

### III.

#### 1. 조사 대상 및 표집 방식

조사는 표본 집단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표본 조사 방식으로 시행되었다.<sup>4)</sup> 표본 집단은 현재 스페인어 문화권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하였다. 국내에도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거주하던 집단이 있으나, 이들은 한국에 대한 개별적이고 특별한 인식 및 관심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스페인어 문화권에 거주하는 평

<sup>2)</sup> A형 설문지는 5개의 주제별로 다음과 같이 설계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3. 주요 설문 내용을 참조할 것.

<sup>3)</sup> 설문 문항에 있어서 한국의 이미지 관련 항목 수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전 연구에서 한국 관련 기초 정보를 지닌 설문 대상자의 비율이 지극히 낮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 첫 번째 이유이며,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의 개선과 문화적 교류 협력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데에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

<sup>4)</sup> 설문 조사 설계, 실시 및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은 『설문조사법』(유영호, 자유아카데미, 서울, 1994), 『설문조사 통계자료분석』(최기현, 자유아카데미, 서울, 1998), “자료의 정리 및 특성”, 『생활과 통계』(류제복 외, 자유아카데미, 서울, 2000)등을 기본 참고 자료로 이용하였음.

균적인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어렵기 때문이다.

설문 조사의 실시를 위한 대상으로는 지리적, 문화적 균형과 안배를 염두에 두어 스페인,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등 총 4개 국가를 표본 조사의 구체적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국가에서는 한국어 관련 교육 기관 혹은 교육 주체가 활동하였거나,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선정 기준에 반영이 되었다. 설문지에 응답한 모집단은 172명이며,<sup>5)</sup> 설문조사는 15세에서 59세에 이르는 비교적 광범위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2. 조사 방식 및 조사 시기

설문 조사 방식은 앞에서 언급한 4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 및 한국학 관련 연구자 혹은 교사를 통해 각국에서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했으며, 각 국에서의 설문 조사 방식은 자기식 조사 방법과 면접 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sup>6)</sup> 표본 집단은 4개국에서 각각 50명 내외, 총 200명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한국 관련 전문가 집단보다는 평균적인 의미에서의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설문 표본

<sup>5)</sup> 표본집단은 총 172명으로, 지역별로 스페인 26명, 페루 51명, 아르헨티나 51명, 멕시코 44명으로 구성되었다.

<sup>6)</sup> 자기식 조사 방법은 설문지를 나눠주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설문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조사 방법이며, 면접 조사 방법은 설문 시행자가 설문 대상자에게 설문 항목을 하나씩 문의하며 진행하는 방법으로, 대상자의 설문조사에 대한 집중력이 낮은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다.

집단은 자기식 조사 방법의 상대적인 낮은 회수율 때문에 예상했던 표본 집단의 규모보다는 다소 적은 총 172명의 표본 집단이 되었다.

설문 조사 시기는 2003년 2월 말에서 3월 중순에 걸쳐 약 2주간 실시되어 조사 시기에 따른 변수 발생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과 페루, 아르헨티나의 경우와 비교하여 멕시코의 조사 결과가 특정 항목에 있어서 다소 다른 점은 한국과 멕시코 간의 미묘한 감정적 대립이<sup>7)</sup>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설문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 3. 주요 설문 내용

#### 1) 인적 사항

연령, 성별, 직업, 국적, 혼인 여부, 교육 정도

#### 2) 외국 및 외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 외국어의 필요성

외국 여행 선호도, 외국 여행 경험 유무, 외국어의 필요성 인식도, 외국어 학습의 목적

---

<sup>7)</sup> “멕시코 검찰수사관 교포여성 알몸수색”이라는 동아일보 기사(2002년 12월 13일)에서 살펴볼 수 있듯, 멕시코 사회에서 한국인들과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불신은 결국 한국측의 멕시코 정부에 대한 민감한 반응으로 연결되었고, 설문조사 실시 당시에도 문화적 배경에 대한 상호 이해가 결여된 채 민감한 감정적 대응이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따라서, 멕시코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최근 몇 년 동안 축적된 평균적 이미지와 비교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 3) 아시아 국가 및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인식 및 관심

방문 관심 아시아 국가, 아시아 문화 관심도, 아시아 언어 관심도, 아시아 여행 경험 유무

### 4) 한국에 대한 정보 및 이미지

한국의 위치, 한국에 대한 기초 지식 정도, 한국 정보를 얻는 주요 매체, 한국 방문 경험 유무, 한국 방문 목적, 알고 지내는 한국인의 유무, 한국의 기본 이미지, 한국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 한국의 주식, 한국의 언어, 한일 월드컵에 대한 국가 이미지 향상 평가,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도, 한국 제품 구매 이유, 교육 기관에서 한국에 대한 학습 경험의 유무, 한국에 대한 분야별 관심 선호도, 한국과의 미래 관계 전망, 한국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에 대한 평가

### 5) 한국어 및 한국학에 대한 관심도 및 문제점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 기관의 유무, 한국어 구사 능력, 한국어 학습 기관, 한국어 및 한국학 관련 학습의 목적, 한국 관련 소유 정보의 정도, 한국 관련 연구, 보고서, 출판물의 유무, 한국학 학습에 있어서 선행 과제, 한국학 연구 수준 향상을 위한 제안, 한국어 학습의 주요 문제점 평가, 한국학 관련 학습의 주요 문제점

## IV.

주요 결과에 대한 분석은 빈도 분포에 의한 기초적 통계 분석 방식을 택하였으며, 문항별 집계 결과를 기초로 주제별 분석의 내용을 확인하고 평가한다.

### 1. 인적 사항 분석

먼저 국적에 따른 표본 집단의 구성 분포는 페루 51명, 아르헨티나 51명, 멕시코 44명, 스페인 24명, 베네수엘라 1명, 이탈리아 1명으로 총 172명에 이른다.

연령별 분포는 30세 미만이 97명이며, 30대가 42명, 40대 이상이 16명에 이르며, 평균 연령은 28세이다.

성별은 여성이 97명으로 전체 56.4%를 차지하여,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별 분포를 이루고 있다.

직업별 분포는 학생 74명(43%), 직장인 60명(34.8%), 학생이면서 직장인 12명, 무직 12명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따라서 일반적인 국민 평균적 집단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의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 설문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8)</sup>

---

<sup>8)</sup> 설문 조사의 실시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표본 집단이 전체 국민들의 평균적인 사고방식과 인식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보다 많은 교육과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대도시의 중산 계층에서 표본 집단이 구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조사 결과의 분석과 평가에도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결국 한국과의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계층에 대한 관점에서 본다면, 대도시의 중산 계층이 표본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본 설문 조사의 구성은 전체적 의미에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장점과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혼인 여부는 미혼이 전체 172명 가운데 118명으로 68.6%의 절대 우위를 보였다. 평균 연령이 28세라는 분석 결과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부분이다.

교육 정도에 대한 설문 항목에 대한 인식은 한국인들은 주로 졸업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데 반하여, 스페인어 문화권의 설문 응답자들은 졸업 및 재학의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응답하였다. 대학교(졸업 혹은 재학생. 이하 동일) 79명, 고등학교 44명, 대학원 19명, 전문대 17명, 중학교 10명 순이다.

인적 사항 분석에 있어서 국가별 분포도에 특이한 사항은 포착되지 않았으나, 스페인과 멕시코의 경우에는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페루와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직장인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다.

## 2. 외국 및 외국어에 대한 인식 분석

외국 여행에 대한 선호도는 절대다수인 170명이 긍정적으로 응답을 했으며, 55.8%인 96명이 1회 이상 외국 여행 경험을 갖고 있다.

응답자 가운데 72.6%인 125명이 외국어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외국어 학습의 목적을 의사 소통 (33%), 문화 이해 (26%), 직업 선택의 기회(21.4%), 여행(14.8%) 등의 순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여행 관심 국가로는 일본(42%)에 이어 중

국(22.7%)과 한국(21.2%)이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아시아 언어를 배운다면 일본어(50.2%)에 이어 역시 중국어(20.9%)와 한국어(20.5%)가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 이 항목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복수 응답 항목이므로, 실제로 하나의 국가 및 언어만 선택하는 경우에는 일본과 일본어에 대한 상대적인 선호도가 지금의 결과보다 훨씬 높게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다. 흥미 있는 사실은 페루의 경우에는 일본어에 대한 선호도가 절대적(일본어: 40명; 중국어 6명; 한국어 8명, 기타 3명)이며, 멕시코와 아르헨티나가 평균적인 데 반하여, 스페인의 경우에는 한국 및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 3. 아시아에 대한 인식 분석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도 조사에서는 87%의 응답자가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으나, 86%의 응답자가 아시아를 가본 적이 없다.

### 4. 한국에 대한 인식 분석

설문 응답자 가운데 123명인 71.5%가 한국이 극동에 있다고 대답하였으나, 13명은 중동, 13명은 인도차이나로 응답하였고, 23명은 어디에 있는지 짐작을 하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정보는 주로 TV(25%), 인터넷(15%), 신문(14.8%),

책(13.9%), 아는 사람(13.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2.8%는 아예 한국 관련 정보를 얻는 매체가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본인 스스로를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32.5%), 거의 모르는(35.5%)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을 다녀온 사람은 제한적인 10명이며, 여행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람을 한 사람 이상 알고 있는 사람은 82명으로 비교적 한국에 대해 알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의 비중은 낮지 않은 편이었다.

#### 5. 한국에 대한 인식 분석

한국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은 긍정적(41.3%)이거나 매우 긍정적(10.5%)로 나왔으나, 보통(39%)과 부정적(4%)이거나 특별한 인상이 없는 경우(5.2%)와 같은 응답도 다양하게 나왔다.

한국의 대표적인 인상을 꼽으라는 서술식 질문에는 매우 다양한 답이 나왔으나, 대부분 유형별로 묶을 수 있는 답변이었다. 23.3%인 40명의 응답자가 첨단 기술 및 산업, 경제 부흥 등과 같이 ‘경제 발전’과 관련된 답변을 했으며, 20.9%인 36명은 월드컵과 올림픽, 축구, 태극기 등과 같이 ‘국제 행사 개최’를 한국의 대표적 인상으로 떠올렸다. 그러나 13.4%인 23명은 남북 분단, 북한 핵 등과 같은 ‘남북 대치 상황’에 의한 인상을 우선 떠올렸으며, 특별한 ‘인상이 없다’는 응답도 17.4%인 30명이나 대답했다. 그 밖의 다양한 인상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중국과 한국을 혼동하거나 유사

한 문화권으로 인식하여 답변을 한 경우가 의외로 많았으며, 일본과 한국을 혼돈하거나 유사하게 인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한국의 인상은 일본과는 구분되지만, 중국과는 뒤섞인 채 각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9)</sup> 남북 대치 상황은 최근의 테러와의 전쟁 및 핵무기 보유에 관련된 국제 이슈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스페인을 제외한 페루, 아르헨티나, 멕시코의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인상이 6.25 전쟁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데에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스페인에서는 김치, 불고기, 한복 등과 같은 한국의 전통 문화가 한국의 대표적 인상으로 선정되었지만, 페루와 아르헨티나에서는 경제 성장과 관련된 인상이 두드러졌으며, 멕시코에서는 남북 대치 상황 경제 발전, 국제 행사 개최 등이 거의 비슷한 빈도의 인상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의 주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9.3%인 16명이 모른다고 대답했지만, 90.7%인 156명은 정확하게 쌀이라고 대답했다. 최소한 한국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 국가의 일원이라는 정보는 갖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언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129명인 75%가 한국어의 존재를 짐작하거나 알고 있으나, 25%인 43명은 모른다(34명)거나

---

<sup>9)</sup> 스페인어 문화권 사람들에게 한국과 중국, 일본에 대한 인상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인상을 중국의 그것과 혼돈하는 경우로 ‘팬더 곰’, ‘만리장성’ 등과 같은 예가 있었으며, 일본의 인상과 혼돈된 경우는 설문 조사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영어(3명), 일본어(3명), 중국어(3명) 등으로 대답했다.

2003년 한일 월드컵이 한국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64.5%인 111명이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으며, 모른다(14.5%; 25명)거나 부정적(3%; 5명), 혹은 보통(18%; 31명)이라는 대답도 있었다.

한국 제품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64.5%인 111명이었고, 35.5%인 61명은 모르고 있었다. 제품 가운데, 가전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40.8%), 자동차(20.8%), 의류(19.1%) 등의 순이었다. 회사에 대한 인지도로는 삼성(41.2%), 대우(26%), 현대(17.6%), 엘지(8.9%), 기아(6.3%) 순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한국 제품을 구입하게 된 이유는 제품 가격(31.5%)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제품 성능(15.8%)과 제품 디자인(11.3%), 우연히(9%) 등의 순이었고, 전혀 구입하지 않은 응답자도 21.6%에 달했다.

교육 기관에서 한국에 대해 배운 적이 없는 응답자가 전체의 81.4%인 140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한국에 대한 각국의 관심도가 얼마나 낮은가 단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응답자들 가운데, 언어 학교(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경우: 3명)나 대학교(멕시코 콜레히오 데 메히코의 경우: 10명)을 제외한다면 그 비율은 더욱 낮아진다. 초등, 중등, 고등 교육 기관에서 한국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들의 비율은 15명 (8.7%)에 그치고 있어,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한국에 대한 교육은 거의 전무하거나 형식적인 경우에

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10)</sup>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 관광(8.7%), 역사(7%), 사회(6.9%), 신화와 전설(6.7%), 언어(6.5%), 음식(5.9%), 경제(4.5%), 예술(4.5%)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자국에 한국 관련 연구 기관이나 센터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50.6%인 87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나(84명) 무관심하다고(3명) 대답했다. 국가별로는 스페인의 경우에는 있다는 답을 올바르게 선택한 경우가 81%에 달했으며, 멕시코의 경우에는 52.2%,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39.2%, 그리고 페루의 경우에는 18%의 응답자가 올바르게 선택을 했다. 모집단의 구성에 따라 응답 결과에 미칠 변수가 형성될 수 있기는 하지만, 국가별 한국 관련 연구 기관이나 센터의 활동 및 홍보 등과 연결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분석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자국의 국제 관계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는 59%인 102명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15.7%인 27명이 부정적으로 응답을 했고, 모른다는 응답도 43명 25%에 달했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에는 9명이 부정적으로, 15명이 모르겠다고 답을 하였으며,

---

<sup>10)</sup> 교육 기관에서의 한국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 정도는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역사 교과서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일본 및 중국과 비교하여 한국에 대한 각국의 관심도와 관심 분야, 연구 및 교육 정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본 연구 논문이 지향하는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한국학 정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조사·분석’ 연구 과제의 한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45.5%인 20명 만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여, 최근의 한국과 멕시코 사이에서 벌어진 일련의 감정적 대립이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자국에서 현실적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어떠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멕시코의 경우가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스페인	페루	아르헨티나	멕시코	누적	비율
부정	3	2	1	11	17	10.0%
보통	19	17	29	15	80	46.5%
긍정	4	13	9	6	32	18.5%
모름	0	19	12	12	43	25.0%
누적	26	51	51	44	172	100%

#### 6. 한국 및 한국어 학습 관련 인식 분석

본 항목은 설문 조사 양식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모집단은 33명이며, 국가별로 스페인 25명, 멕시코 5명, 아르헨티나 3명으로 구성되었다.

본인의 한국어 소통 능력을 묻는 질문에 대해 27%인 9명이 잘한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어를 학습한 기관으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언어 학교

(18명)와 멕시코 콜레히오 데 메히코 (5명), 바르셀로나 대학교 (3명)을 끝았고, 한국이 3명(초등학교 1명, 교환 학생 1명, 연수생 1명) 등의 순서로 결과가 나왔다.

<표 2>

	스페인	멕시코	아르헨티나	누적	비율
전혀	0	0	2	2	6%
거의 못함	10	0	1	11	33.3%
약간	10	1	0	11	33.3%
잘함	5	4	0	9	27.3%
매우 잘함	0	0	0	0	0%
누적	25	5	3	33	100%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32명(97%)이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교육 기관의 부족 12명(37.5%)과 교재의 부족 6명(18.8%), 연습 부족 5명(15.6%), 언어 자체의 어려움 5명(15.6%), 교사의 부족 4명(12.5%)의 순으로 나왔다.

한국 관련 학습의 목적을 묻는 서술식 질문에 대한 응답은 9가지의 유형으로 다양하게 나왔으며,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가 42.4%(14명)이 대답을 했고, 한국어 습득이 21.2%(7명)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 습득이 9%(3명) 등의 순으로 나왔다.

한국 관련 지식 및 정보의 수준을 묻는 질문은, 역사, 정치, 문화, 경제, 문학 등의 다섯 분야로 나누어 물어보았다. 각 항목에 대해 거의 모르거나 약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거의 절반에 가까웠으며, 잘 알고 있다는 대답(5.7%)은 거의 드물었다. 특히 문



학에 관한 항목에서는 응답자 31명 가운데 24명(77.4%)이 거의 모른다고 대답했으며, 잘 알고 있다는 대답은 없었다.

한국학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 관련 학습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서술식 질문에 는 교재 부족 33.3%(11명), 발음, 어휘, 문법 등 언어 자체의 어려움 30%(10명), 교육 기관 및 연습 기회의 부족 24%(8명), 그리고 정보 부족을 지적한 응답자는 12%(4명)에 달했다. 특히 교재 부족에 있어서는 교재가 주로 영어와 한국어로 제작된 교재가 있으나 스페인어로 제작되어 있는 단계별 교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하였고, 한-서-서 사전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한국 관련 연구 보고서 및 출판물 실적에 대한 질문에 24.3%(10명)가 4편 이상 있다고 답변하였고, 6%(2명)가 1편 있으며, 69.7%(23명)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여, 아직 대부분의 응답자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기초 단계의 학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관련 학습을 위한 우선 과제를 묻는 서술식 항목에서는 가장 많은 42.4%의 응답자(14명)이 한국어의 높은 구사력을 손 꼽았으며, 36.3%의 응답자(12명)이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 및 이해를 첫째로 들었으며, 한국 관련 전공 및 강좌의 개설과 같은 제도적 보완책을 15.2%(5명)의 응답자가 지적하였다.

한국어 및 한국 관련 학습 수준 향상을 위한 조언을 구하는 서술식 항목에서는 첫째, 경쟁력 있는 교재의 보급(31.3%), 둘째, 전공 학점 인정 제도를 갖춘 교육 기관 및 교사의 확보(29.2%), 셋째,

교환 학생 제도를 포함한 한국 문화 교육 및 체험(23%), 넷째, 수준별 단계별 학습 및 연습 기회(16.7%)를 지적함으로써,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의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 V.

아시아 경쟁국들에 대한 관심도에 비하여 한국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28.5% 가량의 설문 응답자가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 긍정적 수준의 정보를 접하고 있는 응답자는 7.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인상은 경제, 전쟁 위기, 스포츠 등으로 국한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정보가 없이 단순화된 이미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인식과 비교하여 한국의 국가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낮은 상황에서, 기업의 제품 경쟁력은 제품의 가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드러난다.

각국의 한국에 대한 막연한 인상과 낮은 관심도, 그리고 한국에 대한 각국의 형식적이고 미흡한 정보 교육은 대부분 어느 정도 예

상된 것이긴 해도, 설문 조사의 분석 결과가 예상보다 부정적이라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형식적이고 낙관적인 한국 알리기는 소모성 행사에 머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대형 국제 행사 등을 계기로 한국의 인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한국의 국제 위상이 도약했다고 낙관적으로 믿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설문 조사의 분석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한국학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설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B형 설문 조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파악한, 해외, 특히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의 위상은 여전히 낙후하며, 열악한 현실을 몇몇 교사들의 애정과 헌신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의 진흥은 보완적인 관계이다.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한국학은 현실적으로 한국어 교육과 유리되어 생각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 기관의 확보와 교재의 개발, 인력의 발굴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 **Encuesta**

para la investigación básica a realizar  
[el estudio y análisis de los datos sobre Corea en el mundo hispánico para los estudios coreanos]

Estamos muy interesados en su respuesta que nos ayudará mucho a proveer informaciones útiles acerca de la imagen de Corea y de los estudios del país en general. Así que, por favor conteste y rellene las siguientes encuestas y permítanos conocer su opinión.

### **- Instituto de Estudios de Asia y América -**

Esta encuesta se divide en las siguientes secciones:

\* Sección A (Todos los encuestados pueden contestar las encuestas de esta sección)

\* Sección B (Los coreanistas y estudiantes de la lengua coreana o de los estudios de Corea deben contestar hasta las encuestas de esta sección)

#### **Sección A**

- País donde se realiza la encuesta: \_\_\_\_\_.

- Fecha realizada de la encuesta: \_\_\_\_\_.

1. ¿Qué edad tiene usted? \_\_\_\_\_ años.

2. ¿Sexo?        M \_\_\_\_\_,        F \_\_\_\_\_.

3. ¿Cuál es su trabajo?

Estudiante \_\_\_\_\_,        Trabajador \_\_\_\_\_,

Amo/a de casa \_\_\_\_\_,        Desempleado/a \_\_\_\_\_.

4. ¿Cuál es su nacionalidad? \_\_\_\_\_.

5. ¿Estado civil?

Soltero/a \_\_\_\_\_,        Casado/a \_\_\_\_\_,

Viudo/a \_\_\_\_\_,

Divorciado/a \_\_\_\_\_,        Unión libre \_\_\_\_\_.

6. ¿Cuál es su último grado de estudios?

Nada \_\_\_\_\_,        Primaria \_\_\_\_\_, Secundaria \_\_\_\_\_,

Bachillerato \_\_\_\_\_,        Escuela técnica \_\_\_\_\_,

Universidad \_\_\_\_\_,        Escuela de posgraduado \_\_\_\_\_.

7. ¿Le gustaría viajar o planear algún viaje por los países extranjeros?

\_\_\_\_\_.

8. ¿Ha estado más de una vez en los países extranjeros?

\_\_\_\_\_.

9. ¿Cree que hace falta hablar lenguas extranjeras para vivir en el mundo?

Absolutamente no \_\_\_\_\_, Algo sí \_\_\_\_\_, Mucho \_\_\_\_\_,

Muchísimo \_\_\_\_\_, No lo sé \_\_\_\_\_.

10. ¿Si cree que es necesario estudiar las lenguas extranjeras, qué motivo tiene?

Para comunicar con la gente de otras lenguas \_\_\_\_\_,

Para conocer otras culturas \_\_\_\_\_,

Para obtener mejor trabajo \_\_\_\_\_,

Para realizar viajes por los países \_\_\_\_\_,

Para realizar otros propósitos \_\_\_\_\_.

11. ¿Qué país le interesa primero entre los países asiáticos?

\_\_\_\_\_.

12. ¿Le interesan las culturas asiáticas en general?

Casi no \_\_\_\_, Algo \_\_\_\_, Mucho \_\_\_\_, Muchísimo \_\_\_\_\_.

13. Si tiene que estudiar alguna de las lenguas asiáticas,

¿qué lengua va a estudiar? \_\_\_\_\_.

14. ¿Ha estado alguna vez en los países asiáticos?

Nunca \_\_\_\_\_, Una \_\_\_\_\_, Dos \_\_\_\_\_, Más \_\_\_\_\_.

15. ¿Sabe dónde se sitúa Corea?

Medio oriente \_\_\_\_\_, Sudamérica \_\_\_\_\_, Extremo oriente \_\_\_\_\_,

Africa \_\_\_\_\_, Indochina \_\_\_\_\_, India \_\_\_\_\_.

16. ¿Sabe algo de Corea?

Nada \_\_\_\_\_, Poco \_\_\_\_\_, Regular \_\_\_\_\_,

Un poco \_\_\_\_\_, Mucho \_\_\_\_\_.

17. ¿Si tiene algunas informaciones sobre Corea, qué medio le sirvió para obtenerlas? (Puede seleccionar cuánto quiera)

Periódico \_\_\_\_, Libros \_\_\_\_, Radio \_\_\_\_, Televisión \_\_\_\_\_,

Revista \_\_\_\_\_, Internét \_\_\_\_, Personas conocidas \_\_\_\_\_,

etc. (escriba: \_\_\_\_\_)

18. ¿Ha estado alguna vez en Corea?

Nunca \_\_\_\_\_, Una \_\_\_\_\_, Dos \_\_\_\_\_, Más \_\_\_\_\_.

19. Si ha estado en Corea, ¿cuál fue su objetivo del viaje?

Viaje \_\_\_\_\_, Negocios \_\_\_\_\_, Investigación \_\_\_\_\_,  
etc. \_\_\_\_\_.

20. ¿Conoce alguna persona coreana?

Nadie \_\_\_\_\_, Uno/a \_\_\_\_\_, Dos \_\_\_\_\_,  
Más \_\_\_\_\_.

21. ¿Qué imagen tiene sobre Corea?

Muy mala \_\_\_\_\_, Mala \_\_\_\_\_, Regular \_\_\_\_\_, Buena \_\_\_\_\_,  
Muy Buena \_\_\_\_\_.

22. ¿Qué le ocurre primero como imagen representativa al pensar en Corea?

\_\_\_\_\_.

23. ¿Cuál sería la comida principal para los coreanos?

Maíz \_\_\_\_\_, Papa (patata) \_\_\_\_\_, Arroz \_\_\_\_\_,  
Pan \_\_\_\_\_.

24. ¿Qué idioma se usa en Corea? \_\_\_\_\_.

25. ¿En qué sentido el Mundial de Fútbol 2002 Corea-Japón sirvió a la imagen de Corea?

Negativo \_\_\_\_\_, Regular \_\_\_\_\_, Positivo \_\_\_\_\_,  
No lo sé \_\_\_\_\_.

26. ¿Qué productos coreanos conoce?

\_\_\_\_\_.

27. Si compró algunos productos coreanos, ¿por qué decidió adquirirlos?

Imagen de la marca \_\_\_\_\_, Imagen del país \_\_\_\_\_,  
 diseño del producto \_\_\_\_\_, Función del producto \_\_\_\_\_,  
 Precio del producto \_\_\_\_\_, Por casualidad \_\_\_\_\_.

28. ¿Ha estudiado sobre Corea en la Institución académica?

No: \_\_\_\_\_.

Sí:

Primaria \_\_\_\_\_, Secundaria \_\_\_\_\_, Bachillerato \_\_\_\_\_,  
 Escuela técnica \_\_\_\_\_, Universidad \_\_\_\_\_, Escuela de posgrado \_\_\_\_\_.

29. ¿Qué campo le gustaría conocer más en las culturas coreanas?  
 Seleccione solamente cinco campos que le gustan entre los ejemplos abajo  
 suministrados: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Arquitectura, Artesanía, Bellas Artes, Canción, Comercio, Comida,  
 Ciencia, Cine, Cultura folclórica, Danza, Deportes, Economía,  
 Espiritualidad, Filosofía, Historia, Industria, Lengua, Literatura, Mitos y  
 leyendas, Música, Política, Recursos naturales, Región, Relaciones  
 internacionales, Religión, Sociedad, Turismo.

30. ¿Tiene alguna información sobre algún centro o un instituto  
 académico para estudiar sobre Corea en su país?

Sí, sí hay \_\_\_\_\_, No estoy seguro de sí hay o no \_\_\_\_\_,  
 No, no hay \_\_\_\_\_, No me interesa \_\_\_\_\_.

31. ¿Cree que las relaciones internacionales entre Corea y su país serán  
 más íntimas en el futuro cercano? \_\_\_\_\_.

32. ¿Cree que las imágenes generales de Corea que se producen en su  
 país reflejan positivamente la realidad del país?

Negativo \_\_\_\_\_, Regular \_\_\_\_\_, Positivo \_\_\_\_\_,



No lo sé \_\_\_\_\_.

Gracias por tomarse la molestia de contestar a las preguntas de esta encuesta.

A continuación se sigue la sección B.

### Sección B

33. ¿Habla coreano?

Nada \_\_\_\_\_, Muy mal \_\_\_\_\_, Mal \_\_\_\_\_, Bien \_\_\_\_\_,  
Muy bien \_\_\_\_\_.

34. ¿Dónde aprendió el coreano? \_\_\_\_\_.

35. ¿Qué problemas ha tenido para aprender el coreano? Si los tiene o ha tenido, seleccione los números abajo suministrados según el grado de la importancia.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Falta de centros o escuelas

Falta de profesores

Falta de textos y materiales

Falta de las oportunidades para practicar

Falta de necesidad

Por la dificultad que tiene la lengua

Por el problema económico

36. ¿Cuál es el propósito de los estudios coreanos?

:

---

37. ¿Hasta qué grado sabe de Corea?

Historia: Poco \_\_\_\_\_, Regular \_\_\_\_\_, Mucho \_\_\_\_\_.

Política: Poco \_\_\_\_\_, Regular \_\_\_\_\_, Mucho \_\_\_\_\_.

Cultura: Poco \_\_\_\_\_, Regular \_\_\_\_\_, Mucho \_\_\_\_\_.

Economía: Poco \_\_\_\_\_, Regular \_\_\_\_\_, Mucho \_\_\_\_\_.  
Literatura: Poco \_\_\_\_\_, Regular \_\_\_\_\_, Mucho \_\_\_\_\_.

38. ¿Cuál ha sido el problema más grave en los estudios coreanos?  
:

\_\_\_\_\_.

39. ¿Tiene algunas investigaciones hechas o publicaciones sobre Corea?

No: \_\_\_\_\_,

Sí:

Una \_\_\_\_\_, Dos \_\_\_\_\_, Tres \_\_\_\_\_, Más \_\_\_\_\_.

40. ¿Cuál sería la prioridad para realizar los estudios coreanos?

:

\_\_\_\_\_.

41. Sugerencias para mejorar el nivel de estudios coreanos.

: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Gracias por tomarse la molestia de contestar a las preguntas de esta encuesta.

El propósito principal de esta encuesta es para realizar la investigación académica. Por eso, las informaciones y opiniones aquí suministradas serán tratadas con absoluta confidencialidad, y los datos personales no serán puestos a disposición de terceros en ningún caso. Únicamente los datos no personales serán publicados como artículo académico, si es necesario.

## 부록 II. 설문지 문항별 주요 집계 결과

(서술형 문항에 대한 답변은 집계 결과에서 제외함)

### A 유형의 설문지에 의한 설문 주요 집계 결과

#### 1. 연령: 항목 1

내용	빈도수	백분율	누적 빈도수	누적 백분율
30세 미만	97	56.4%	97	56.4%
40세 미만	52	30.2%	149	86.6%
40세 이상	23	13.4%	172	100%

#### 2. 성별: 항목 2

내용	빈도수	백분율	누적 빈도수	누적 백분율
남성	75	43.6%	75	43.6%
여성	97	56.4%	172	100%

## 3. 직업: 항목 3

내용	빈도수	백분율	누적 빈도수	누적 백분율
학생	74	43%	74	43%
직장인	60	34.8%	134	77.8%
학생/직장인	12	7%	146	84.8%
주부	13	7.6%	159	92.4%
무직	8	4.6%	167	97%
교수(사)	5	2.9%	172	100%

## 4. 국적: 항목 4

내용	빈도수	백분율	누적 빈도수	누적 백분율
페루	51	29.6%	51	29.6%
아르헨티나	51	29.6%	102	59.3%
멕시코	44	25.6%	146	84.9%
스페인	24	14%	170	98.8%
기타	2	1.2%	172	100%

## 5. 혼인 여부: 항목 5

내용	빈도수	백분율	누적 빈도수	누적 백분율
미혼	118	68.6%	118	68.6%
기혼	33	19.2%	151	87.8%
동거	11	6.4%	162	94.2%
이혼	7	4%	169	98.3%

과부/홀아비	3	1.7%	172	100%
--------	---	------	-----	------

## 6. 교육 정도 (재학 포함): 항목 6

내용	빈도수	백분율	누적 빈도수	누적 백분율
초등	3	1.7%	3	1.7%
중등	10	5.8%	13	7.6%
고등	44	26%	57	33%
전문대	17	9.8%	74	43%
대학	79	46%	153	88.9%
대학원	19	11%	172	100%

## 7. 외국 여행: 항목 7

내용	빈도수	백분율	누적 빈도수	누적 백분율
1회이상	96	55.8%	96	55.8%
없음	76	44.2%	172	100%

## 8. 외국어 필요성: 항목 9

내용	빈도수	백분율	누적 빈도수	누적 백분율
없음	5	2.9%	5	2.9%
약간	42	24.4%	47	27.3%
많음	81	47%	128	74.4%
매우 많음	44	25.6%	172	100%

## 9. 외국어의 목적 (복수 응답): 항목 10

내용	빈도수	백분율	누적 빈도수	누적 백분율
의사 소통	100	33%	100	33%
문화 이해	81	26.7%	181	59.7%
직업	65	21.4%	246	81.2%
여행	45	14.8%	291	96%
기타	8	2.6%	299	96.7%
무응답	4	1.3%	303	100%

## 10. 아시아 여행 관심국 (복수 응답): 항목 11

내용	빈도수	백분율	누적 빈도수	누적 백분율
일본	83	42%	83	42%
중국	45	22.7%	128	64.6%
한국	42	21.2%	170	85.9%
인도	7	3.5%	177	89.4%
태국	5	2.5%	182	92%
기타	16	8%	198	100%

## 11. 학습 대상으로서의 아시아어 (복수 응답): 항목 13

내용	빈도수	백분율	누적 빈도수	누적 백분율
일본어	103	50.2%	103	50.2%
중국어	43	21%	146	71.2%
한국어	42	21%	188	88%
기타	17	8.3%	205	100%

## 12. 한국의 위치: 항목 15

내용	빈도수	백분율	누적 빈도수	누적 백분율
극동	123	71.5%	123	71.5%
인도차이나	13	7.6%	136	79%
중동	13	7.6%	149	86.6%
모름	23	13.4%	172	100%

## 13. 한국에 대한 정보: 항목 16

내용	빈도수	백분율	누적 빈도수	누적 백분율
전혀	56	32.5%	56	32.5%
거의 없음	61	35.5%	117	68%
약간	42	24.4%	159	92.4%
어느 정도	11	6.4%	170	98.8%
많이	2	0.2%	172	100%

## 14. 한국 관련 정보 얻는 매체 (복수 응답): 항목 17

내용	빈도수	백분율	누적 빈도수	누적 백분율
텔레비전	83	25%	83	25%
인터넷	50	15%	133	40%
신문	49	14.8%	182	55%
책	46	13.9%	228	68.9%
아는 사람	44	13.3%	272	82.2%

특별히 없음	59	17.8%	331	100%
--------	----	-------	-----	------

## 15. 한국의 인상: 항목 21

내용	빈도수	백분율	누적 빈도수	누적 백분율
부정적	7	4%	7	4%
보통	67	39%	74	43%
긍정적	71	41.3%	145	84.3%
매우 긍정적	18	10.5%	163	94.8%
없음	9	5.2%	172	100%

## 16. 한국의 언어: 항목 24

내용	빈도수	백분율	누적 빈도수	누적 백분율
한국어	129	75%	129	75%
영어	3	1.7%	132	76.7%
일본어	3	1.7%	135	78.5%
중국어	3	1.7%	138	80.2%
모름	34	19.8%	172	100%

## 17. 2002 한일 월드컵이 한국에 미친 영향: 항목 25

내용	빈도수	백분율	누적 빈도수	누적 백분율
부정적	5	3%	5	3%
보통	31	18%	36	20.9%
긍정적	111	64.5%	147	85.5%



모름	25	14.5%	172	100%
----	----	-------	-----	------

## 18. 한국 제품을 구입한 이유 (복수 응답): 항목 27

내용	빈도수	백분율	누적 빈도수	누적 백분율
제품 가격	70	31.5%	70	31.5%
제품 성능	35	15.8%	105	47.3%
제품 디자인	25	11.3%	130	58.6%
우연히	20	9%	150	67.6%
상표 이미지	16	7.2%	166	74.8%
국가 이미지	8	3.6%	174	78.4%
없음	48	21.6%	222	100%

## 19. 교육 기관에서 한국에 대한 학습 경험: 항목 28

없음	140	81.4%	140	81.4%
초등	2	1.2%	142	82.6%
중등	11	6.4%	153	89%
고등	2	1.2%	155	90.2%
전문대	2	1.2%	157	91.3%
대학	12	7%	169	98.3%
대학원	3	1.7%	172	100%

## 20. 한국과 자국과의 국제 관계의 전망: 항목 31

내용	빈도수	백분율	누적 빈도수	누적 백분율
긍정적	102	59.3%	102	59.3%

부정적	27	15.7%	129	75%
모름	43	25%	172	100%

## 21. 자국에서 현실적인 한국의 이미지: 항목 32

내용	빈도수	백분율	누적 빈도수	누적 백분율
부정적	11	10%	11	10%
보통	80	46.5%	99	56.5%
긍정적	32	18.5%	131	75%
모름	43	25%	172	100%

## B 유형의 설문지에 의한 설문 주요 집계 결과

## 22. 한국어 소통 능력: 항목 33

내용	빈도수	백분율	누적 빈도수	누적 백분율
전무	2	6%	2	6%
최소한	11	33.3%	13	39.4%
약간	11	33.3%	24	72.7%
잘하는 편	9	5.2%	33	100%
능숙한 편	0	0%	33	100%

## 23. 한국어 학습 시 어려움 (복수 응답): 항목 35

내용	빈도수	백분율	누적 빈도수	누적 백분율
교육 기관 부족	12	37.5%	12	37.5%
교재 부족	6	18.8%	18	56.3%

연습 기회 부족	5	15.6%	23	71.9%
언어 자체	5	15.6%	28	87.5%
교사 부족	4	12.5%	32	100%

24. 자신의 한국 관련 지식, 정보의 정도: 항목 37

내용	빈도수	백분율	누적 빈도수	누적 백분율
최소	73	46.8%	73	46.8%
보통	74	47.3%	147	94.2%
우수	9	5.8%	156	100%

25. 자신의 한국 관련 연구, 보고서 혹은 출판물의 유무: 항목 39

내용	빈도수	백분율	누적 빈도수	누적 백분율
없음	23	69.7%	23	69.7%
1개	2	6%	29	87.9%
2개	0	0%	29	87.9%
3개 이상	8	24.2%	33	100%

## Abstract

La encuesta [el estudio y análisis de los datos sobre Corea en el mundo hispánico para los estudios coreanos] se realizó en los meses febrero y marzo, 2003 en España, México, Perú y la Argentina. La impresión general de Corea es positiva (52%). El 23% de las encuestadas indican el desarrollo económico y la industria de tecnología punta como imagen representativa coreana. Ellas prefieren saber más del turismo, historia, sociedad, mitos y

leyendas y lengua de Corea, indicando la falta de instituciones y profesores como factor más urgente para promover los estudios coreanos en su país.

Key Words: Korea, Korean Studies, Korean Language, Mexico, Spain / 한국, 한국학, 한국어, 멕시코, 스페인

논문투고일자: 2004. 1. 4

게재확정일자: 2004. 2. 13

### 참고문헌

- 김경원/임현진(공편)(1995),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
- 김병우(2003), 『통계학의 이해와 응용』, 두남.
- 김현택(1999), 「러시아에서 한국학 연구의 역사와 현재 상황」, 『러시아 지역 연구』, No. 3, pp. 1-47.
- 김해진(2003), 『기초 통계학의 이해』, 형설.
- 류제복 외(2000), 『생활과 통계』, 자유아카데미.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편(1999), 『한국학의 세계화를 위한 해외소재 한국학관련자료 수집 및 정보화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 송기종 편찬(1993). 『한국학 기본용어집』, 한국국제교류재단.
- 유영호(1994), 『설문조사법』, 자유아카데미.
- 임홍수(1999),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 실태와 문제점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학적 분석」, 『러시아지역

연구』, No. 3, pp. 109-134.

정재구(1999), 『통계조사법』, 경기대학교 연구교류처.

최경희/송성수(2001), 「과학기술 교양과목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과학기술정책』, No. 131,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최기헌(편저)(1998), 『설문조사 통계자료분석』, 자유아카데미.

허명희(1995), 『통계조사의 길잡이』, 자유아카데미.

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편저(1998), 『한국학 대사전』, 민중서림.

한국언론학회 편(2002),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홍보전략』, 한국언론학회.

한국통계학회(1992), 『알고보면 재미있는 통계이야기』, 자유아카데미.

R. 위머, J. 도미니크(1995), 『매스미디어 조사 방법론』 (유재천/김동교 공역), 나남.